

## 토론문

토론자:김현선(명지대)

2019년 12월 31일 호북성 무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까지 확산되면서 전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1년이 지난 현재(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 확진자는 8200만을 돌파했으며, 사망자는 180만을 넘어섰다. 오늘날 코로나19의 범유행과 방역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하여 세 분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염병과 방역, 환경과 위생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토론자로서 세 분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먼저 박한민 선생님과 이치카와 선생님의 연구에서 개항장 검역에 있어 조일 양국이 모두 주도권 문제로 마찰을 경험하였던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두 분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을 주도한 국가가 근대 문명을 주도한다는 것과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 위기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이른바 ‘강대국들’이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강대국들’의 대처는 상상 이상으로 무능했고 속수무책이었다. 여신충 선생님의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적 변천과 성격’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근대적 위생 방역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더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미래 중국의 위생 건설의 병폐를 바로 잡는데 큰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담으로 여신충 선생님과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화중사범대학(華中師範大學)에 재학할 때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특강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된 마음에 잠을 설쳐가며 선생님의 특강을 들으러 간 적이 있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차마 선생님께 사진과 사인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오늘 선생님을 뵈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개인적으로 궁금

한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다.

1) 4p에서 “근대 위생방역의 뚜렷한 근대성과 외래성에만 착목해 전통적 요소와 역량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공중위생과 연관된 관념이나 행위가 청조 말엽 이전의 중국 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역량이 이를 주도했으므로 그 표출방식이 개별적이고 자주적이며 공권력의 개입이 결여된 특징을 보일 따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역량이 의약국사업 등을 벌일 때 국가 및 관부와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한 적이 있다.(然而我们于此看到，随着社会的发展，非但没有出现国家和官府同社会力量的日趋严重的对立，相反却在兴办医药局之类的事业中出现更多、更为广泛的合作。<清代江南疫病救疗事业探析-论清代国家与社会对瘟疫的反应>, p.55) 그렇다면 관부와 협력의 과정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2) 8p에서 “(근대 공중보건)의 근대적 동력은 역시 중국문명 자체에 내재된 엄청난 자생력과 자강정신이었고 대대로 이어온 사회적 재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이 갖는 의미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정자는 이를 실정에 대한 하늘의 견책으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재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시에 있었다”를 이해하였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문명 자체에 내재된 엄청난 자생력과 자강정신”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그것을 과장하여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3) 5p에서 “위생적 각도에서 이룩된 근대화 과정의 허다한 ‘진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가 일상다반사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희생과 사회적 불만을 언급한 문집이나 기록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취약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과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반면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삼은 탓에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코로나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도 한다. 청대 역병이 발생했을 때 사회역량이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 민간에서는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社会力量의领导者-乡贤-一般都深受传统儒家伦理道德的影响, 他们在追求自己私利的同时, 也会多少顾及地方社会和国家的利益。〈清代江南的瘟疫与社会〉 p. 288)

전염병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류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전염병과 관련하여 하나의 지구로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오늘 선생님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닥칠 전염병 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